

대한민국 지키기 - 4강+ 한국의 대실패, 북핵게임

김진현

객원논설위원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북한의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개발 성공 앞에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쫓겨나고 있다. 4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WMD성공의 극치이다. 지난 27년을 회고하면 세계최강대국이란 나라들 그리고 북한보다 44배나 경제규모가 크고 교육 문화 네트워크가 백배는 더 많은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에 농락당한 근대사의 아이러니 앞에 너무 허무해진다. 1990년 영변핵시설에서 우라늄추출 정조가 포착된 이후 오늘까지 27년간 4강과 한국이 일관되고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 북핵게임이다. 시종일관 협박 협상 미소 기만으로 한국내부 그리고 4대국 간을 분열시켜 이 지구상 유일한 3대 세습 신정왕조를 유지하고 독일도 일본도 한국도 못한 세계9대핵보유국으로 등극했다. 4대강국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성공을 그리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공동합작한 ‘완벽한 대실패’ 앞에 이게 ‘대국’이란 것들이고 이게 ‘우리나라’인가 하는 역사적 회의를 떨굴 수가 없다. 특히 일개 서생에도 못 미치는 저질의 식견과 판단과 예측력을 실증했기 때문이다.

1992년 겨울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는 하버드대 인구·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의 「두 한국은 통일 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실었다. 독일 통일의 성공으로 한국도 통일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통일 되느냐는 논의가 활발하지만 남북간 군사긴장, 북한의 독자핵개발능력, 독일·소련관계와 다른 중국·북한관계는 냉전이 끝나도 독일형 드라마가 한반도에서 펼쳐지 어려울 것이라 서두를 꺼냈다. “이미 북한은 핵개발 의혹만으로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한미군 핵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중단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낸 바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교훈’때문에라도 핵무장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잠시 핵개발을 중지할 수는 있

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인 전망이다. 북한은 다가올 ‘어려운 때’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핵개발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닉은 지금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전문가로서 인구·사회구조분석으로 소련의 붕괴를 예측했고 최근엔 보수싱크탱크인 AEI에서 미국의 사회병리를 파헤치며 경고하고 있다. 개인적교류는 20년쯤 되는데 학문의 깊이와 성실성에 감탄할 때가 많다. 트럼프현상이 나오기 4년 전쯤 미국 공공정책연구소들이 객관적 연구보다 사실상 로비스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솔직한 토로에 감복한 적이 있다. 선진국의 멀쩡하게 이름 있는 연구소들조차 돈 따라 외국이나 이익단체 로비스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닉 같은 인격적으로 성실하고 학문적으로 통찰력 있는 학자가 한 묶음 있다는 것이 미국의 힘이기도 하다.

그의 논문발표 1년 전(1991.6.17)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통일이 늦어도 금세기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독교훈과 남북한 접근전략보고회의’를 소집, 통일준비가 미흡하다고 달구쳤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전 대한민국도 OECD가입하고 당당한 군사대국 됐으니 기왕이면 한국을 넣어 ‘5대 강국’으로 부르자 했다. 당시 대통령 입후보자였던 김대중, 김종필씨도 5대 강국을 합창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제2 건국운동’을 제창하고 2000년 방북 뒤에는 노벨상과 통일 꿈에 너무 취했던지 망발을 거듭했다. 그 하나만 들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갈 것이고 그러면 서울로 곧바로 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발언 보좌진마저 당황케 했다(2001.10.28 대구그랜드 호텔). 노무현 대통령의 ‘동아시아 균형자 역할’(2005.2.14 취임 2주년 기념식)은 자주 회자되는 당당한 웅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합니다’ 했고 퇴임사에서는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했다(2013.2.25).

지극히 성실한 한 학자의 통찰력만도 못한 역대대통령들의 ‘자존망대’의 레토릭과 허상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말자. 거창한 5년짜리 구호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실체 실존에 즉해서 대한민국의 실체 실존이 4대 강국에 결정적 영향,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지정학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그것만이 통일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다. 통일 평화 민족 국가 발전 민주라는 대의와 명제를 역대대통령과 패거리들이 끊임없이 사유(私有)화 한데서 실패의 원인과 결과가

있다.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위대한 성공을 했다. 이 힘을 갖고 타일랜드정도에 자리 잡았다 가정하면 동남아의 맹주가 된다. 아프리카 케냐쯤 자리했다면 아프리카 대제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양과 규모에서 압도적인 그리고 모두 제국의 역사를 호령했던 4대강국에 둘러싸인 세계유일의 지리와 역사의 특수성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성실하고 조금 능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히 간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학교는, 군대는, 교회는, 노조는, NGO는 무엇보다 정치와 시민은 4대국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 월등히 높은 경쟁력, 도덕력, 선진(善進)력, 기술력, 신용력,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정의, 평화, 안보, 자유, 연대에서 모두 지극하고 간절해야 한다. 더 큰 공동체 대의를 위해 고생할 각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한다. 웅변과 영웅과 이념의 우상을 벗어 던지자.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지키고 자립자주를 이끄는 출발점이다.